

**Fire
News**

**PC통신(국내, Web)에서 발췌한
각종 화재·폭발 사고를 제공.**

97/ 08/ 19 주유소에서 불

3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주유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주유기 등을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당시 지하 저유탱크에 2만여ℓ의 기름이 저장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불길의 번지지 않고 1시간 만에 진화.

경찰은 주유기 옆에 설치된 전기배관이 빗물로 인해 합선을 일으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

97/ 08/ 21 프랑스 사일로 폭발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남서쪽 50km 떨어진 블레에 있는 '라 스마블라'社의 높이 50m의 곡물저장 대형 사일로들이 연쇄 폭발, 무너져 내린 곡물과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1명이 사망, 12명 행방 불명.

뜨거운 날씨로 인해 사일로 속의 곡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한 가스와 정전기가 스파크를 일으켜 폭발한 것으로 추정.

97/ 08/ 23 아파트 지하공동구에서 불

10시 10분경 서울 송파구 요촌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2단지 지하공동구에서 불이나 전화가 불통되고 정전이 되는 등 큰 불편.

무자격 용접공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공동구 배관공사를 하다 용접 불티가 단열재 테이프와 전선피복 등으로 튀어 화재.

소방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없어 초기진화에 실패.

97/ 08/ 27 청담동 진흥아파트 불

17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구내 지하 변전실과 5·6동을 잇는 지하통로에서 화재가 발생, 난방 배관과 전력선 등을 태운 뒤 10여분만에 진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큰 불편.

이날 불은 지하통로에서 난방 배관 보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배관을 싸고 있는 보온재에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발생.

97/ 09/ 04 파리 아파트 폭발사고, 53명 부상
8시 35분경 프랑스 파리 남서부 에펠탑 근교 튀르쿠르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최소 53명이 부상하고, 그 중 3명은 심각한 상태.

가스에 의한 폭발로 추정.

97/ 09/ 08 육교에서 폭발사고

11시 27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 앞 육교에서 도장작업 중 폭발, 2명 사망, 2명 부상.

사고는 육교 상판의 높이 1m, 너비 0.5~2m인 철골조 작업구 내의 휘발성 증기가 원인 모를 불꽃이 튀어 발생했으며, 폭발은 사망자가 환기통을 통해 50여m나 날려갈 정도로 강력.

경찰은 작업구 안에 여러 가닥의 전선이 엉켜 있어 전기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

97/ 09/ 10 대학병원에서 화재

10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대병원 5층 복도 배관 샤프트에서 냉온수 배관 교체를 위한 산소 절단작업중 불티가 배관 보온재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

공동구내 전선 및 환풍기를 태웠으나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

97/ 09/ 12 정화조 용접작업 중 가스 폭발

11시 40분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파트 앞 지하 정화조기계실에서 용접작업 중 가스가 폭발.

작업 중 갑자기 '썩'하는 가스 새는 소리가 나 다른 인부들은 급히 피했으나 빠져나오지 못한 1명이 크게 다쳐 중태.

97/ 09/ 21 중국 신발공장 화재

5시경 중국 후젠성의 신발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2층 기술사에서 잠자던 종업원 32명이 사망.

종업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쇠창살을 설치하여 많은 희생자 발생.

97/ 09/ 27 칠레 아동정신장애인 수용원서 불

오전에 칠레 산티아고 북쪽 콜리나의 아동 정신장애인 수용원에서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최소 31명 사망.